

당신만의 졸업식 사진, 숨겨진 캠퍼스 명소에서!



졸업식 사진 명소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졸업식에 빠져선 안 될 것이 있다. 기념사진이다. 졸업생들은 떠나는 아쉬움을 덜기 위해 교정을 배경으로 셔터를 누른다.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가족과 친구들에게 대학생활을 누렸던 캠퍼스를 배경으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정에서의 추억을 아름답게 담고자 하는 지금! 북적거리는 인파 탓에, 또 거울이라 양상한 나뭇가지들이 배경에 걸려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양 캠퍼스 사진동아리의 조언을 토대로 평소 무심코 지나가는 장소를 활용해 각 캠퍼스 '사진 명소'를 선정했다. 색다른 사진에 도전하며, 정든 캠퍼스를 떠나 더 큰 곳으로 나아가는 아쉬움을 달래 보길 바란다.



1 일반적으로 재학시절 내내 우리가 보아온 평화의 전당의 모습은 정면이다. 그러나 졸업식과 같은 특별한 날이라면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평화의 전당을 담아보자. 모두가 평화의 전당의 정면을 사진에 담으려 북적거리는 마당을 살짝 벗어나 건물 옆으로 향해보면, 그곳에 평화의 전당 측면 사진을 찍기 좋은 포인트인 화성교가 자리하고 있다. 화성교 중간에 있는 철문 앞의 가로등 곁에서 포즈를 취해보자.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저 셔터만 눌러도 그럴듯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2 우리학교의 자랑인 서울캠퍼스(서울캠) 본관. 한국인이 설계하고 지은 최초의 석조전이라는 이 본관은 전체 모습도 아름답지만 부분 부분의 디테일도 뛰어나다. 사자상 뒤편으로 층층이 쌓인 곳에 자리를 잡아보자. 각도에 따라 본관 기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조형미를 확인할 수 있다. 촬영하는 사람이 사자상 측면 잔디밭에 아예 드러누워 찍는 것이 숨겨진 팁이다.

3 우리는 서울캠 중앙도서관을 주로 미네르바 광장 쪽으로 진입해왔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본관과 중앙도서관 입구를 직선으로 잇는 길도 있는데, 이 길의 초입이 중앙도서관의 전경을 사진 프레임 안에 예쁘게 담을 수 있는 주요 촬영 포인트다. 찍히려는 사람이 계단 위에 올라서고 찍는 사람이 계단 아래에서 찍으면 좋다. 한낮의 태양으로 인한 역광에만 주의하면 누구나 일정한 품질의 사진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4 본관의 석조기둥들은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예쁘지만 측면에서 봐도 꽤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다. 기둥과 본관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동안 쉽게 보지 못했던 본관의 매력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 나열된 기둥을 배경으로 겨울 경치에 취해 여러 자세를 시도하다보면 본관에 드나드는 교직원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민망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마지막이니 개의치 말자. 오늘은 당신의 날이고, 남는 것은 사진뿐이다!

5 서울캠 본관 앞 사자상에는 얽힌 전설이 하나 있다. 이 사자 등에 올라타고 사진을 찍으면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전설 덕분에 새내기 시절 차마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던 졸업생들이여, 이제 마음껏 사진을 찍어보자. 저주인 듯 저주 아닌 저주



같은 전설의 효력은 이제 불과 하루뿐이다! 다만 사자상은 꽤 높은 곳에 있고 그 아래 바닥은 단단한 화강암 바닥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제일이다!

6 국제캠퍼스(국제캠) 정문인 네오르네상스문은 정면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 내부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단장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평소에 네오르네상스문의 내부에는 별로 시선을 두지 않은 하지 않았던가! 오늘날만큼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장면에 집중해보자. 네오르네상스 문 내부의 벽에는 '새천년 지구 공동사회 선언문'이 걸려있다. 새천년을 맞이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글의 문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각자의 선언문을 되쳐보며 경이정신에 대해 되새겨 보자.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역동적인 사진은 덤이다. 참고로 강충 뛰는 사진에서 중요한 팁은, 찍는 사람이 최대한 아래쪽에서 찍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7 국제캠 중앙도서관의 석조기둥은 서울캠 본관 기둥 못지않은 규모와 포스를 자랑한다. 서울캠 본관의 기둥이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면, 국제캠 중앙도서관의 기둥은 남성적인 위용을 뽐내고 있다. 쪽 뺨은 길고 늘어선 열주들은 꽤 색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모델같은 소울에 빙의해서 기둥에 기대거나 걸터앉아 사진을 찍어보자.



8 국제대학 뒤편엔 작은 공원이 있다. 국제대학 학생이 아니라면 여간해선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 중 하나다. 동양적인 석탑과 서구적인 동상이 어우러져 묘한 매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자유로운 포즈로 사진을 남기기에 그만인 곳.

9 소나무와 체육대학의 조화가 남다르다. 체육대학 역시 많은 공이 들어간 우리학교의 걸작 건축물 중 하나다. 체육대학의 전경을 뒤로 둔 채 체육대학 앞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어보자. 단, 차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니 안전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10 우리는 모두 우정원과 멀티미디어관을 이어주는 계단을 수도 없이 지나곤 했다. 때로는 펜로즈의 계단처럼 끝없이 느껴지기도 했던 곳. 그럼에도 이젠 그리워질 이곳에 앉아 추억을 남겨보자. 이 사진의 위치에서 찍으면 계단들의 각도가 사진에 재미를 더해준다!

